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가다/오다’의 인식 양상 연구*

박은정(계명대)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3.1. 구체적 대상 |
| 2. ‘가다/오다’의 특성 | 3.2. 추상적 대상 |
| 3. ‘가다/오다’의 인식 양상 분석 | 4. 분석 결과 및 논의 |

1. 들어가기

언어들마다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언어권에서 사회·문화적인 경험(신체화)에 의해 모국어를 습득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 시에 ‘이동’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또한 자신의 모국어 체계에 의존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의존하여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한국어 화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에서 멀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어 학습 초기에 다루어지는 이동 동사 ‘가다’와

* 이 논문은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2S1A5B5A07036105].

‘오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에 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모국어의 유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는 자신의 모국어에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국어 의존도보다 학습의 효과로 한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 가까워지는지, 한국어 수준이 높아져도 모국어가가 가진 유형의 특성으로 한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과 거리를 좁힐 수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에 대한 연구 중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학에서는 ‘가다’와 ‘오다’ 자체의 의미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 이기동(1977)이 있고, 다의적 의미에 관해 논의한 이종열(1998)과 주관적 이동 표현의 의미 특성을 분석한 임지룡(1998)이 있다. 유형론적으로 접근한 Talmy(1985, 1991)에서는 이동의 움직임 을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 두 가지 언어 유형으로 나누었다. 경로 자질이 드러나게 표현 되는 언어를 위성어틀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라 하고, 경로 자질이 움직임 동사 에 융합되어 표현되는 언어를 동사틀 언어(verb-framed language)라 분류한 바 있다.¹⁾ 임지룡(2000)에서는 ‘가다’ 합성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한국어의 이동 동사는 <이동>, <경로>, <방식>, <원인> 등의 의미 정보가 <(V3어)V2어>V1어+가다의 합성형(예: 달려들어가다)의 형태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므로 Talmy(1985)가 제시한 유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3의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숙(2007)에서는 한국어 에서 경로의 의미자질이 표현되는 통사상 위치는 문장의 핵인 동사의 위치라고 하면서 한국어는 동사형 언어의 유형적 특질에 속한다고 분석하였다.²⁾ 그리고 이동의 기준점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동 사건의 기준점이 ‘화자인지’ ‘청자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 사건을 인지하는 사람의 위치’임을 강조한 고석주(2007)이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대조분석적인 접근법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조경운

1) Talmy(2000)에서는 ‘동사틀 언어’와 ‘위성어틀 언어’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한국어는 경로 자질이 동사로 표현되는 동사틀 언어로, 영어는 전치사와 같은 수의적 부가어로 설명하는 위성어틀 언어라고 불렀다.

2) 본고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가 어느 유형인지가 초점이 아니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2005), 김정관(2009), 오경숙(2009), 이연옥(2011)이 있다. 조경운(2005)에서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김정관(2009)에서는 한국어 모국어화자와 일본어, 중국어 모국어 화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각 언어권의 화자들의 자신의 모국어에서 '가다'와 '오다'의 선택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오경숙(2009)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두 동사의 용법을 기술하였다. 이연옥(2011)에서도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가다'와 '오다'를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가다'와 '오다'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대조 연구하여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줬으나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의 '가다'와 '오다'의 인식 양상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구체적 대상의 물리적 이동인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구체적 대상의 심리적 이동이나 추상적 대상의 이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아쉬움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가다'와 '오다'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k대학의 한국어학당 학생(정부초청장학생 포함)과 학부 학생들 중에서 중급과 고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필검사를 실시하였다. Nakazawa(1990)의 분석틀에서는 이동 주체를 화자와 청자, 제3자를 기준으로 11개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추상적 대상의 물리적 이동을 나타내는 '맛이 가다, 물가가 올라가다/내려가다, 시간이 지나가다' 그리고 개념화자의 심리적 이동을 표현하는 '이해가 가다, 마음이 가다'를 추가하여 학습자의 모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작성하였다.³⁾

연구 대상자들의 정보는 아래 <표1>과 <표2>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급학습자는 400시간 이상 수업을 받았고 토익 4급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다. <표1>에 학습자들의 국가와 공용어를 제시하였다.

3) 임지룡(1998: 189)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에 '이동'·'경로'·'방식'의 정보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는 단일형과 합성형으로 실현되며, 단일형으로 [이동]: 가다, 오다 [경로]+ [이동]: 올라가다, 내려가다 [방식]+[경로]+[이동]: 뛰어들어가다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국가	미국(3)	태국	가나	예멘	수단	칠레
공용어	영어	태국어	영어	아랍어	아랍어	스페인어
국가	일본(3)	캄보디아	파나마	우간다	헝가리	이란
공용어	일본어	크메르어	스페인어	영어	헝가리어	페르시아어
국가	네팔	중국(2)	대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2)	인도네시아
공용어	네팔어	중국어	대만어	벵갈어	우르두어	인도네시아어
국가	이스라엘	기니	말레이시아	인도	탄자니아	필리핀
공용어	히브리어 영어	프랑스어 마닌카어 플라르어	영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타밀어	아삼어, 벵갈어, 영어, 타밀어 등	영어, 스와힐리어	타갈로그어, 영어, 스페인어
국가	멕시코	캐나다	에티오피아(2)	케냐		
공용어	에스파냐어	영어, 프랑스	암하리어	영어, 스와힐리어		

<표 1> 중급학습자 정보-36명

고급학습자는 <표2>에 제시하였다.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받았고 토픽 4급을 취득한 학생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	세르비아	미국(2)	헝가리	중국(5)	일본(5)	우즈벱	몽골(2)
공용어	세르비아어	영어	헝가리어	중국	일본어	우즈벱어	몽골어
국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말레이시아(2)	
공용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밀어, 싱할리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표 2> 고급학습자 정보-24명

<표1>과 <표2>에서 학습자들 국가의 공용어를 표기한 이유는 이들의 한국어 '가다'와 '오다'의 인식 양상이 Talmy(1985)가 나눈 언어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보기 위함이다. 각 언어권과 한국어의 대조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모두를 한국어와 대조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장에서의 '가다'와 '오다'의 선택 양상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의 '가다'와 '오다'의 인식 양상을 살펴 언어권별 유형화가 가능한지,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다'와 '오다'의 선택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동 동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2. '가다'와 '오다'의 특성

Nakazawa(1990)는 일본어 'いく'와 'くる', 영어 'go'와 'come', 한국어 '가다'와 '오다'를 비교·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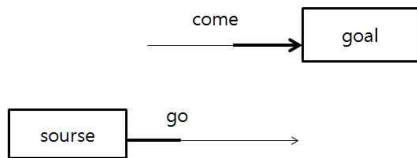
이동 주체	목적지	영어	일본어	한국어
화자	화자	come	くる	오다
	청자	come	いく	가다
	제3의 장소	go	いく	가다
청자	화자(발화시)	come	くる	오다
	화자(참조시)	come/go	いく/くる	가다/오다
	청자	come/go	いく/くる	가다/오다
	제3의 장소	go	いく	가다
제3자	화자(발화시)	come	くる	오다
	화자(참조시)	come/go	いく/くる	가다/오다
	청자	come	いく(くる)	가다/오다
	제3의 장소	go	いく	가다

<표 3> Nakazawa(1990)의 분석

<표3> Nakazawa(1990)을 보면 영어, 일본어, 한국어에서 선택되는 동사가 일치하는 경우는 6가지가 있다. 주로 목적지가 청자일 때와 화자(참조시)가 목적지가 되는 경우에 세 언어에서 다른 동사가 선택된다. 이동 주체가 화자, 청자, 제3자일 때 각각 그 목적지가 화자로 이동할 때 세 언어 모두 ‘오다’가 선택된다. 마찬가지로 이동 주체가 화자, 청자, 제3자일 때 각각이 제3의 장소로 이동할 때 모두 ‘가다’가 선택된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이동 주체가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므로 이동 주체를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나 <표3>의 세 언어 모두 동일한 동사가 선택되는 경우를 보면 이동 주체가 화자, 청자, 제3자인지에는 관계없이 이동 주체가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의 표대로라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동사의 선택이 일치하므로 일본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이동 동사를 배울 때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지는 3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일반에서 이동의 움직임과 관련된 가장 많은 표현이 ‘가다’와 ‘오다’이다(이남석, 1999). 이남석(1999)에서는 화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다’는 ‘출발지(source)’가 초점이 되는 시원-정향적이고, ‘오다’는 ‘도착점(목표:goal)’이 초점이 되는 목표-정향적이라고 하였다.

Radden(1996)에서는 영어 ‘go’의 의미를 경험적 요소인 ‘화자의 기준점’에 따라 이동의 개념을 가진 ‘come’과 특징적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 ‘가다’와 ‘오다’의 윤곽 (Radden(1996: 427))

이남석(1999)과 Radden(1996)을 Nakazawa(1990) <표1>과 비교해보면 ‘가다’나 ‘오다’가 동일하게 선택되는 6가지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다’와 ‘오다’의 설명에 기댈 수 있으나 ‘가다’와 ‘오다’가 모두 선택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에서 ‘가다’와 ‘오다’가 다르게 선택되는 상황은 위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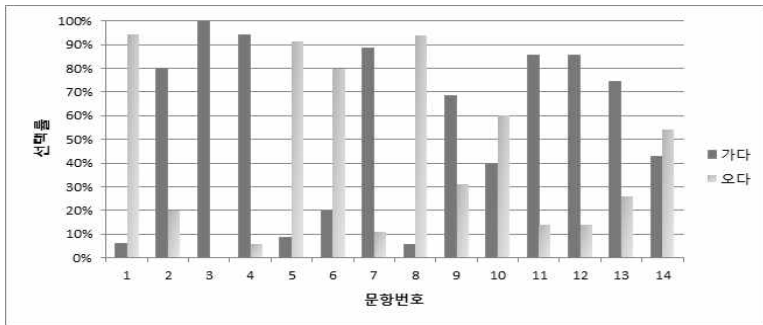
3. '가다/오다'의 인식 양상

3.1. '가다/오다'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인식 양상

지필검사지는 1번부터 20번 문항으로 구체적 대상의 이동과 추상적 대상의 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⁴⁾

3.1.1. 중급학습자

지필검사의 1번부터 14번까지는 구체적 대상의 이동을 표현하는 문항이다. 화자, 청자, 제3자의 이동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 1> 구체적 이동에서 '가다/오다' 선택 - 중급학습자

문항 1번과 2번은 이동의 주체가 화자이다. Nakazawa(1990: 106)의 표에서는 문항 1번과 같이 화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영어, 일본어, 한국어 모두 같은 동사 '오다'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중급학습자들의 94%가 '오다'를 선택하였다. 인도와 캐나다에서 온 학습자만 '가다'를 선택하였다. 화자가 청자에게로 이동하는 다음의 2번 문항은 학습자의 80%가 '가다'를 선택하였다.

4) 임지룡(1998)과 이종열(1998)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동 주체를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대상에 따라 물리적 이동과 심리적 이동으로 다시 나누어 문항을 작성하였다.

(1) (A씨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2번 문항: 지금 내가 A씨의 사무실로 (가고/ 오고) 있어요.

2번 문항은 Nakazawa(1990: 106)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가다’와 ‘*いく*’가 선택되고 영어는 반대로 ‘come’이 선택된다고 한 문항이다. ‘오다’라고 답한 학생은 이스라엘, 캐나다, 수단, 인도네시아, 네팔, 일본(2명)에서 온 학습자 7명이다. 일본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로는 ‘*いく*’(가다)가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오다’라고 답한 학습자가 2명이었다. 학습자 모국어의 영향으로 7명의 학습자들이 ‘come’을 선택했다고 볼 수 없다.

(2) (나는 우리 집에, A씨는 A씨 집에 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3번 문항: 오늘 같이 학교에 (갑시다/ 옵시다).

화자와 청자가 각각 다른 곳에서 함께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3번 문항은 중급학습자 모두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0% ‘가다’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모두 ‘가다’를 선택한 것은 모국어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항 4번은 화·청자가 각각 다른 곳에 있는데 청자가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중급학습자의 94%가 ‘가다’를 선택하였다. 문항 5번은 화자와 청자가 지금 있는 장소로 같이 이동하는 표현으로 학습자의 91%가 ‘오다’를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중급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번은 청자가 화자(발화사)에게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학습자의 80%가 ‘오다’를 선택하였다.

(3) (나와 우리 집에, A씨는 A씨 집에 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6번 문항: 지금 우리 집에 (갈 거예요? / 올 거예요?)

Nakazawa(1990: 106)에서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모두 ‘오다’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파키스탄, 탄자니아, 몽골, 가나, 예멘, 에티오피아, 우간다에서 온 학생 7명이 ‘가다’를 선택하였다. 가나와 우간다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탄자니아도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이들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가다’를 선택한 것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7번은 화·청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청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89%가 '가다'를 11%가 '오다'를 선택하였다. 8번과 9번은 제3자의 이동으로 8번은 제3자가 화·청자가 함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고 9번은 제3자가 청자에게로 이동한다는 차이가 있다. Nakazawa(1990)의 분석표에서는 제3자가 화자에게로 이동할 때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모두 '오다'가 선택되며 제3자가 청자로 이동하는 경우는 영어로는 'come'이 일본어에서는 'いく(くる)' 한국어에서는 '가다/오다' 둘 다 가능하다고 하였다.

(4) (나와 A씨는 같이 있습니다. 동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8번 문항: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동생이 우리에게 (가서/ 와서) 도와줄 거예요.

(5) (나는 우리 집에, A씨는 A씨 집에 있습니다. 동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9번 문항: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아마 동생이 당신에게 (가서/ 와서) 도와줄 거예요.

학습자들의 선택을 보면 8번은 '오다'가 94%, 9번은 '가다'가 69%, '오다'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8번 문항과 9번 문항은 제3자의 이동은 동일하나 목적지가 화자가 있는 곳인지 청자가 있는 곳인지가 다르다. 한국어 화자들은 '나와 동생'은 '나와 A씨'보다 심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8번에서는 '오다'를 9번에서는 '가다'를 선택하게 된다. 9번 문항에서 '오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파키스탄(2명), 우간다, 탄자니아, 몽골, 이스라엘, 예멘, 인도, 네팔, 일본에서 온 학생으로 모두 10명이다. Nakazawa(1990: 106)에서는 영어로 'come'가 선택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10명의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오다'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다. 학습자들의 선택 양상을 통해 이동 주체가 동일하게 제3자일 경우에도 제3자의 화자로의 이동보다 청자에게로의 이동에서 '가다'와 '오다'의 선택을 더 어려워함을 알 수 있다. 문항 10번은 한국어 학습자가 자주 만드는 오류이기도 하다.

(6) (나와 A씨는 지금 한국에 같이 있습니다. A씨는 방학에 고향에 있을 겁니다.)

A씨가 나를 초대합니다)

10번 문항: 방학에 내 고향에 (가면/ 오면) 내가 안내해 줄게요.

10번 문항은 화자의 심리적 이동으로 화자가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고향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가다와·오다’ 둘 다 쓰이는 상황이 아니라 ‘오다’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동 주체의 이동을 화자가 인식하는 순간에 화자는 그 목적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화자 자신이 제3의 장소에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파악하는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화자 모두 ‘오다’를 선택한다고 하였다(김정관 2007). 그러나 본 연구의 중급학습자 40%가 ‘가다’를, 60%가 ‘오다’를 선택하여 한국어 화자들의 선택에 가깝지만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이동 주체보다 이동 사건을 인지하는 화자의 위치가 ‘가다와·오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문항 11, 12, 13번은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11번은 이동 주체가 화자, 12번은 청자, 13번은 제3자일 경우이다.

(7) (나와 A씨는 지금 같이 있습니다.)

11번 문항: 내일 나 대신 거기(다른 곳)로 (가세요/ 오세요)

12번 문항: 내일 당신 대신 내가 거기(다른 곳)로 (갈게요/ 올게요)

(나와 A씨는 지금 같이 있습니다. 동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3번 문항: 내일 당신 대신 내 동생이 거기에 (갈 거예요/ 올 거예요)

앞의 Nakazawa(1990)의 표에서는 이동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모두 ‘가다’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11번과 12번 문항은 학습자의 86%가 ‘가다’를 선택했고 13번 문항은 74%가 ‘가다’를 선택하였다. 중급학습자들은 제3자의 제3의 장소로의 이동을 화·청자의 이동보다 좀더 어려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급학습자들 중 미국에서 온 학습자, 일본에서 온 한 명의 학습자는 11, 12번은 ‘가다’를 선택했으나 13번은 ‘오다’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가다’를 선택한 것이 모국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14번 문항은 같은 제3자의 이동이지만 11번에서 13번 문항과 달리 ‘가다와·오다’의 선택이 절반가량씩으로 나타났다. 발화시의 화자가 존재하는 장소와 참조시의 화자가 존재하는 장소가 다른 상황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다와·오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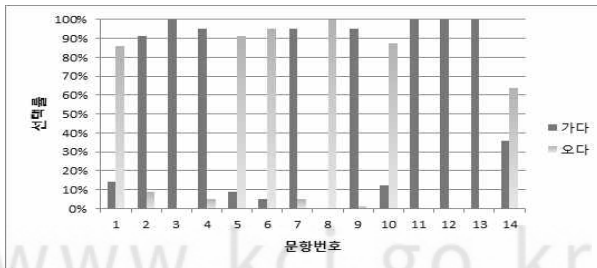
(8) (나와 A씨는 지금 같이 학교에 있습니다.)

14번 문항: 어제 동생이 나를 만나러 (갔었는데/ 왔었는데) 못 만났어요.

Nakazawa(1990)의 표에서는 제3자의 이동은 목적지가 화자(참조시)일 경우 영어, 일본어, 한국어 모두 'come/go' 'いく/くる' '가다/오다' 둘 다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정관 (2009)에서는 발화시 화자 위치로의 이동이나 참조시 본거지로의 이동에 관계없이 제3자가 화자로의 이동하는 경우는 한국어 화자는 모두 '오다'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에 비해 일본 학습자는 일본어로 '가다'를 5% 선택했고 중국어 학습자는 중국어에서 20%가 '가다'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앞의 <그래프 1>에서 보듯이 학습자의 43%가 '가다'를 57%가 '오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 우간다, 헝가리, 태국, 기니, 이스라엘, 가나, 캐나다, 수단, 필리핀, 칠레(무답), 케냐, 인도네시아, 멕시코, 에티오피아에서 온 학습자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목적지가 화자일 때 화자의 발화시와 참조시의 위치가 달라지면 '가다'와 '오다'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고급학습자

고급학습자가 중급학습자보다 '가다'와 '오다'의 선택에 있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선택에 좀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것은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담화 상황에서 좀 더 나은지, 어느 정도의 한국어 수준일 때 '가다'와 '오다'의 사용이 한국어 화자와 같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래프 2>와 앞의 <그래프 1>을 비교하여 고급학습자와 중급학습자의 선택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프 2> 구체적 이동에서 '가다/오다' 선택 - 고급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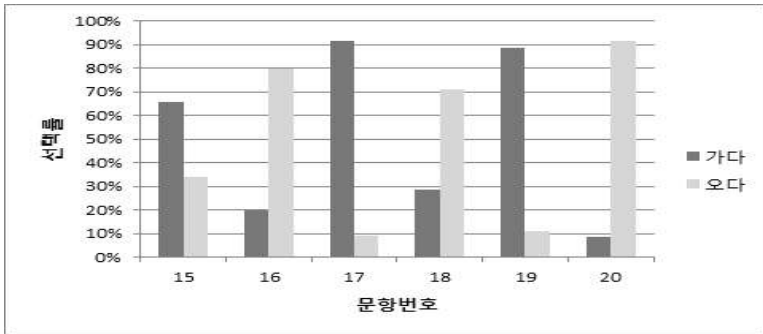
문항 1번과 2번은 고급학습자가 중급학습자의 ‘가다’ 선택 비율보다 조금 높은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3번 문항은 중급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100% ‘가다’를 선택하였다. 화·청자가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가다’가 선택되는 것은 중·고급학습자 모두에게 쉽게 학습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문항 4, 5, 6, 7번 문항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의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다. 8번 문항은 제3자가 화·청자가 함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고급학습자의 경우 100% ‘오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제3자의 이동이지만 청자에게로의 이동을 표현한 문항 9번은 중급학습자와 고급학습자가 ‘가다’의 선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중급학습자의 ‘가다’ 선택은 7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고급학습자들은 90% 넘게 ‘가다’를 선택하였다. 제3자가 청자에게로의 이동은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한국어 화자의 인식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0번 문항은 이동을 인식하는 화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가정하고 청자의 이동을 인식하므로 ‘오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급학습자들은 ‘오다’의 선택 비율이 중급학습자보다 더 높아져 80%를 넘고 있다. ‘가다’를 선택한 고급학습자는 중국(2), 벨라루스에서 온 학습자이다. 문항 11번에서 13번까지는 고급학습자들 모두 ‘가다’를 선택하여 10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급학습자들이 11번과 12번에 비해 13번 문항은 좀 어려워했던 반면에 고급학습자들은 세 문항 모두 한국어 화자의 인식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문항 14번 역시 ‘가다’ 36%, ‘오다’ 64%로 나타나 중급학습자보다 ‘오다’의 선택 비율이 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2. ‘가다/오다’의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인식 양상

지필 검사지의 15번부터 20번까지는 추상적 대상의 이동 표현에 대한 문항이다. 추상적 대상 이동 표현의 예는 ‘가다’와 ‘오다’의 원래 의미에서 더 확장된 의미로 관용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2.1. 중급학습자

먼저 중급학습자들의 ‘가다’와 ‘오다’ 선택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3> 추상적 이동에서 '가다/오다' 선택 - 중급학습자

문항 15번과 19번은 이종열(1998)에서 '맛이 가다, 시간이 가다'의 예문을 통해 추상적 대상의 객관적 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 15번 문항: (날씨가 더운데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어요. 음식 맛이 이상해요. 먹지 마세요. 맛이 (갔어요, 왔어요).
 19번 문항: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지나와요).

(15)번의 '맛이 가다'의 '가다'는 구체적인 장소로의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맛의 '나쁜 상태로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 한국어 화자는 '가다'만 선택한다.

16번과 20번의 '이해가 가다, 마음이 가다'와 같은 예문은 추상적 대상의 주관적 이동으로 언급하고 있다.

- 16번 문항: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와요).
 20번 문항: 그 사람을 몇 번 만나보니까 마음이 (가요/ 와요). 좋은 사람 같아요.

이 또한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 한국어 화자는 '가다'만을 선택한다.

17번, 18번 문항은 임지룡(1998)에서 [경로]+[이동]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가다'와 '오다'의 합성형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합성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17번 문항: 물가가(올라가니까/ 올라오니까) 점점 살기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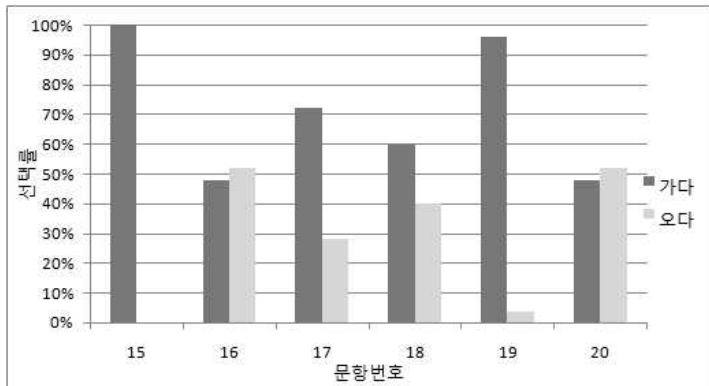
18번 문항: 물가가 좀 (내려가면/ 내려오면) 좋을텐데요.

17번과 18번 문항은 ‘가다, 오다’의 합성형인 ‘올라가다/오다’, ‘내려가다/오다’가 사용된 문장이다. 추상적 이동 대상인 ‘물가가 이동’의 주체가므로 장소 이동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경로동사의 이동표현이다.⁵⁾ ‘올라가다/내려가다’는 구체적 대상의 이동 표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대상의 이동 표현에서도 이동을 인식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가다’와 ‘오다’의 선택이 결정된다.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17번은 ‘가다’를 많이 선택하고 18번은 ‘오다’를 많이 선택하였다.

앞의 <그래프 3>을 보면 16번과 20번에 비해 15번과 19번의 ‘가다’ 선택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급학습자들은 ‘추상적 대상의 객관적 이동’을 ‘추상적 대상의 주관적 이동’보다 더 한국인의 사용 양상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고급학습자

다음은 고급학습자들의 추상적 대상의 이동에서 ‘가다’와 ‘오다’의 선택 양상이다.



<그래프 4> 추상적 대상 이동에서 ‘가다/오다’ 선택 - 고급학습자

5) 이숙(2007)에서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등을 처소 논항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문장의 핵은 선행된 경로동사에 있음은 언급하면서 한국어는 동사형 언어의 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래프 4>를 보면 문항 15번은 고급학습자들이 100% '가다'를 선택하였고 19번 또한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상관없이 한국어 화자의 선택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중급과정을 거쳐 고급과정에 도달하면서 '가다/오다'에 대한 인식이 한국어 모어화자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6번과 20번 문항은 추상적 대상의 주관적 이동인데 두 문항 모두 '가다'를 선택한 비율이 50%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추상적 대상의 주관적 이동 표현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토픽 4급 이상이 되면 한국인들의 사용 양상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합성형인 '올라가다/오다, 내려가다/오다'가 사용된 17번과 18번은 50% 넘는 고급학습자들이 '가다'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인식 양상을 구체적 대상의 이동 표현과 추상적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다'와 '오다'의 선택 상황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어 언어권에 따른 유형으로 나눌 수 없다. 4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은 한국어 이동 동사를 학습해가는 과정에 있고, 한국어 학습 초기를 지나 중급 과정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국어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Talmy(1985)에서 나눈 '동사틀 언어와 '위성어틀 언어' 유형에 따라 이동 표현의 인식 양상이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다'와 '오다' 동사의 선택이 일치하는 일본어권 학습자는 한국어 이동 동사를 배울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선택에서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가다'와 '오다'의 선택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중급 과정보다는 고급 과정으로 가면서 한국어 화자의 동사 선택에 더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여 모국어보다는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 대상의 이동 중에서 중급학습자와 고급학습자 모두 제3자의 이동은 비교적 한국어 화자의 선택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한국어 화자의 '가

다와 ‘오다’ 인식 양상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가다/오다’의 중간언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Nakazawa(1990)의 <표3>에서 영어, 일본어, 한국어에서 동사의 선택이 일치하는 6가지 경우는 영어, 일본어 모어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도 비교적 쉽게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국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자가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화자의 심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10번 문항은 언어권에 상관없이 학습자들이 모두 어려워하고, 제3자의 이동 중 발화시의 화자와 참조시의 화자가 존재하는 장소가 다른 14번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다’와 ‘오다’의 선택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번과 14번은 ‘가다’와 ‘오다’의 선택시 이동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동을 인식하는 사람의 위치가 문제가 된다.

4장에서 살펴본 추상적 대상의 이동 표현은 3장 구체적 대상의 이동 표현과 비교했을 때 중급과 고급학습자들의 ‘가다’ 동사의 선택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급과 고급학습자 모두 추상적 대상의 객관적 이동 표현보다 주관적 이동 표현을 더 어려워하는 것은 공통적이었고 토픽 4급을 취득한 고급학습자들이 추상적 대상의 객관적 이동 표현은 한국인 화자의 사용 양상에 거의 일치하는 ‘가다’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성형인 ‘올라가다/오다’와 ‘내려가다/오다’의 경우는 이동을 인식하는 화자의 위치에 따라 ‘가다’와 ‘오다’의 선택이 달라지므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다’와 ‘오다’의 선택은 이동 주체와 목적지뿐만 아니라 이동을 인식하는 주체까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교수 학습 시에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제어 : 인식 양상, 한국어 학습자, 이동 동사 ‘가다/오다’, 언어 유형, 구체적 대상, 추상적 대상, 주관적 이동, 객관적 이동, 심리적 이동

〈참고문헌〉

- 고석주(2007),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 『한국어학』 제 36집, 한국어학회, 73~97면.
- 김정관(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가다'와 '오다'의 화용론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2009), 「한국어 이동 동사 '오다'와 '가다' 교육을 위한 문법 기술」, 『시학과 언어학』 제 17집, 시학과 언어학회, 121~138면.
- 이기동(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 2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39~160면.
- 이남석(1999), 「이동의 움직임에 관한 지시적 해석」, 「'가다'와 '오다'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 9집, 한국어학회, 229~257면.
- 이숙(2007), 「한국어에 나타나는 이동의 어휘화 형식」, 「Talmy(1985)의 어휘화 유형론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 33집, 이중언어학회, 169~188면.
- 이연옥(2011), 「이동동사 '가다/오다'의 기준점 설정에 대한 가설과 사용양상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열(1998), 「'가다'의 다의성에 대한 인지미론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 3집, 한국어의미학회, 97~118면.
- 임지룡(1998),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 특성」, 『담화와 인지』 제 5(2), 담화인지언어학회, 181~205면.
- 임지룡(2000),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제 20집, 현대문법학회, 23~45면.
- Nakazawa. T.(1990) A Pragmatic Account of the Distribution of Come and Go in English, Japanese and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VIII, 97~110면.
- Radden. G. (1996), Motion metaphorized: The case of coming and going. In Casad. E. H.(ed.). *Cognitive Linguistics in Redwoods: The Expansion of a New Paradigm in Linguistic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423~458면.
- Talmy. L.(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II. 57-1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Vol. 2. Cambridge. MA: MIT Press.

[Abstract]

A study aspect of cognition on '가다/오다' of Korean learners

Park, Eun-Jung

This paper aims to study an aspect of cognition about motion verbs '가다/오다' of Korean learners. It shows an aspect of '가다/오다' choice of intermediate learners and advanced learners. '가다/오다' choice of learners is not influenced by learners' mother tongue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into language patterns. Both learning groups feel more constraint subjective motion expressions than objective motion. '가다/오다' choice of advanced learners are similar to the aspect of usage for Korean speakers. However, advanced learners feel constraint mental motion in usage of '가다/오다'. In this paper, I will point out that it is considered as the main person who has cognizance of motion, destination, and main person in motion.

【Key words】 : aspect of cognition, Korean learners, motion verb '가다/오다', language of pattern, concrete subject, abstract subject, objective motion, subjective motion, mental motion

박은정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문화정보학과 강사

(704-701)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문화정보학과

전자우편: parkej@kmu.ac.kr

이 논문은 2015년 4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6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